경제혁신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보 도 자 료
희망의 대한민국
http://www.motie.go.kr

2015년 10월 8일(목)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10.8(목) 오전 6시 이후 보도 가능)

문의 : 단희수 조선해양플랜트과장, 최태준 사무관(044-203-4332)

산업부 장관, 해양플랜트 발주사 초청
해양플랜트 산업 현안점검 회의 개최

- ▸ 해양 프로젝트 "부가가치 제고"와 "생산비용 절감" 방안 논의
- ▸ 해양플랜트 산업 재도약을 위한 발주사-조선사 협력방안 논의

□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월 8일(목) 거제에서 "해양플랜트 발주사 초청 해양플랜트 산업 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삼성중공업 현장을 방문하여 주요 프로젝트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 이번 간담회는 최근 저유가에 따른 발주 감소, 인도 연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의 국내외 동향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 열렸다.

○ 특히, 조선3사, 해양금융센터(수은, 무보, 산은) 외에 셸(Shell), 엑슨모빌(Exxon Mobil), 송가 오프쇼어(Songa Offshore) 등 조선사와 주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오일메이저 주한 대표들을 초청하여 글로벌 관점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다양한 측면의 의견을 청취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발주사 초청 조선해양플랜트산업 현안점검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10.8(목) 11:30~13:20, 거제 삼성 호텔

◈ 참석: 산업부 장관(주재), Shell · ExxonMobil · Statoil 등 발주사, 현대중 · 삼성중 · 대우조선해양, 수은 · 무보 · 산은 등 20여명

□ 윤 장관은 최근 유가 하락과 경제 위축으로 해양 프로젝트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오일메이저가 해양플랜트 발주 연기, 원가 절감 압박 등의 상황에 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이어 최근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 조선사들이 오일메이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한국 조선사의 역량을 통해 오일메이저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윤 장관은 해양플랜트 산업을 내실화하고, 관련 생태계를 조성하여 프로젝트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생산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말과 함께

○ 세계 최대규모의 심해해양공학수조, 세계 최초의 실해역 기반 시추 테스트베드, 해양플랜트 단계별 남해안 연구벨트*등 연구 인프라를 차질없이 구축하여 기술 경쟁력을 향상 시키고

* 기자재 R&D 센터(부산), 심해자원 생산설비 실증베드(하동), 해양케이블시험센터(목포) 등

○ 조선3사, 중소조선사, 기자재업체, 전문 연구센터*가 협력하여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과 기자재 공급역량을 확대하여 설계 변경, 물류 등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최소화되도록 하고,

* 고급기술 엔지니어링 센터(ATEC, Advanced Technology Engineering Center)

○ 조선소 작업공정 선진화, 민간 자율적으로 논의중인 작업장 안전 강화 등을 지원함으로써 생산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 간담회에 참석한 오일메이저 대표들은 프로젝트 수익성 제고를 위한 한국의 노력을 지지하면서 해양플랜트 산업 재도약을 위해 필요한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윤 장관은 오일메이저의 관심과 지지에 감사를 표하고, 한국 조선업이 경쟁국 대비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고 지금의 위치로 성장한 저력이 있는 만큼, 현재의 어려움도 협업과 혁신을 통해 이겨낼 것이라 믿으며, 한국 정부도 지속해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최태준 사무관(☎ 044-203-433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발주사 초청 조선해양산업 현안점검

☐ **일시/장소**: 10.8(목) 11:30~15:00 / 거제삼성호텔, 삼성중공업

☐ **참석자 :** 산업부 장관(주재)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시스템산업정책관	문승욱
오일 메이저 (7)	Shell	VP	David Cummins
		VP	Paul D'Arcy
	ExxonMobil	Lead Country Manager	Graham Dodds
		Construction Manager	Brain Engelman
	Songa Offshore	Chief Operating Officer	Mark Bessell
		Project HSE Superintendent	Panayiotis Hannas
	Statoil	VP	Siv Soleman
	Maran Gas	Site manager	Panos Nikolaidis
조선3사 (3)	삼성중공업	사장	박대영
	현대중공업	부사장	박종봉
	대우조선해양	전무	김장진
금융기관 (3)	한국수출입은행	부행장	최성영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사장	형남두
	한국산업은행	본부장	김병호